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D-10 ... 알펜시아리조트 야경



세계인의 겨울 축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이 10일 앞으로 다가왔다. '하나된 열정'을 슬로건으로 오는 9일부터 25일까지 17일간 강원도 일원에서 열리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주무대가 될 평창알펜시아리조트가 화려한 야경을 뽐내고 있다. >관련기사 20면

## '법꾸라지' 우병우 징역 8년 구형

국정농단 축소·은폐 등 혐의

검찰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민정수석이 가진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부처 인사 사상에 개입하고 민간 영역에 검찰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한 뒤 "개인 비위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정작 본연의 검찰 업무는 의면해 국가기능을 상실했다"고 질타했다.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은 민정수석직의 일반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 직원들이 확인한 내용을 보고받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를 토대로 한 대통령 지시를 전달한 것"이라며 우 전 수석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우 전 수석은 2016년 상반기 당시 김 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제부 공무원 7명을 좌천성 인사 조치하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그는 국가정보원에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하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의 운용 상황을 보고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구속 상태로 추가 기소됐다. 이 사건은 형사합의31부(나상용 부장판사)에 배당돼 30일부터 재판 절차에 들어간다. >연합뉴스

# 선택 기로에 선 국민의당 중재파

통합개혁신당·민평당 모두 세력확장 위해 뜨거운 영입전  
공동행동 어려울 듯 ... 무소속 남아 사태 추이 지켜볼수도

국민의당 분당사태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중재파 의원들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재파의 선택에 따라 야당의 세력 재편은 물론 여당을 포함한 국회 권력 구도가 다시 그려질 수 있는 상황이라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찬성·반대표들은 세력 확장을 위해 각각 중재파를 향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애타는 손짓=통합 찬성파인 통합개혁신당(가칭)과 반대파인 민주평화당(민평당)은 본격적인 출범을 앞두고 중재파가 자신들에게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재파 의원은 박주선·김동철·주승용·이용호·황주홍 의원 등이다. 여기에 송기석·손금주 의원도 행보를 함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우선, 통합개혁신당이 이들을 맞이할 경우, 국회에서 단독 캐스팅보트 지위를 갖게 돼 강력한 힘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반면, 민평당은 20석 확보 실패로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채 지역당의 한계를 감수해야 한다. 이 구도는 정국을 주도해야 할 여당

인 더불어민주당에게 상당한 부담이다.

하지만, 이들이 모두 민평당을 선택할 경우, 민평당은 호남지역당이라는 한계를 넘어 통합개혁신당과 함께 캐스팅보트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 통합개혁신당으로서는 한국당은 물론 민평당과도 경쟁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되고, 호남이라는 최대의 지역기반이 뿌리째 흔들리는 상황을 맞게 된다.

이 때문에 양 세력은 중재파 설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중재파 의원분들도 기본적으로 통합에 찬성하시는 분"이라며 "다만, 분열이 최소화되는 통합을 원하고 계셔서 지금 열심히 중재활동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9일 안 대표가 바른정당의 유승민 대표와 함께 중재파 의원들과 오찬을 한 것도 참여 설득을 위한 행보로 해석됐다.

반면, 박지원 전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 "(박주선 의원 등은) 중국적으로 민평당에 동참할 것"이라며 "중재파를 이끄는 분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통합은 반

대한다' 이런 명제를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고민 깊은 중재파=이날 중재파는 안·유 대표와 오찬 회동에서도 안 대표의 조기 사퇴를 또 다시 요구했으나 수용(전당대회 전후 사퇴) 가능하다는 안 대표와 달리 유 대표가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 대표의 최종 결정이 또 다시 미뤄지면서 중재파 의원들의 고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들의 선택지는 통합개혁신당이나 민평당에 합류하는 방안과 탈당 후 무소속으로 남는 방안 등 크게 3가지 정도가 있다. 중재파 의원들은 앞서 공동 행동을 친

명한 바 있지만, 실제로는 개별 행동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안 대표와 함께할 경우 지역구 민심과 정체성 문제를 걱정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중재파 측 한 관계자는 "주변에 물어보면 안 대표와 결별하라는 조언이 대부분이지만 실제 민심이 그런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안 대표와 유 대표가 당을 좌지우지할 경우, 호남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길로 갈 가능성이 있어 고민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다고 민평당을 선택하기도 주저된다. 우선, 지역당이라는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 이들은 '호남자민련'이라는 비야남

을 걱정하고 있다. 노쇠한 호남 중진들의 독단도 걱정거리다.

중재파 중 일부는 합류할 당에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안·유 대표와 오찬에서도 이 같은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을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역풍을 맞을 수도 있어 선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중재파가 요구하고 있는 안 대표의 조기 사퇴 여부와 지역 민심 등이 이들의 행보를 결정하겠지만 이마저 어렵다면 무소속으로 남아 사태 추이를 지켜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점쳐진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설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중소상공인 지원 4조 원 확대

다음 달 설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명절자금 지원도 전년보다 4조 원 더 늘어나고 은누리상품권 개인 구매 할인율도 더 높아진다. <관련기사 2면>

다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설 민생안정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다음 달 15일 시작되는 설은 평창 올림픽 기간과 겹친다. 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축수산물 선물세트 한도가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된 이후 첫 명

절이다. 정부는 설 연휴 기간 올림픽 분위기를 띄우고 국민과 외국인 관광객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성수품 공급도 확대하는 등 생활물가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명절자금 지원을 전년보다 4조 원 더 늘린다. 은누리상품권 개인구매 할인율을 5%에서 10%로 상향하고 구매 한도도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린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광주일보

광주 3남매 참사 '엄마의 방화' >6면

아이가 꿈이다 - 저출산의 뒷 58년·82년 개띠의 결혼관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605-1115

로자-사틴 스킨,  
눈부신 피부의 새로운 기준

헤라 로자-사틴 크림

속은 촉촉하고 겉은 보드라운 장미 꽃잎 같은 피부, 로자-사틴 스킨 섬세한 겹케어로 완성한 이상적인 피부 컨디션입니다. 로자-사틴 콤플렉스™를 함유한 크림이 선사하는 촉촉하고 매끄러운 피부결로 메이크업을 더욱 빛나게 하는 최적의 스킨을 경험하세요.

HERA

전국 백화점, 아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www.hera.com / 고객센터: 080-023-5454 (수신자요금부담)